

# 광주비엔날레 대표에 박양우 전 장관 내정

이용섭 광주시장 “재단 위상 높이고 세계적 행사 도약시키자는 공감대 형성”

김선정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로 공석중인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에 박양우(6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정됐다. 2015년부터 3년 간 대표이사로 활동한 데 이어 두번째 대표직에 올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삼고초려 끝에 박 전 장관을 신임 비엔날레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거에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고, 직전 장관까지 역임해 모시기 어렵지 않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끝에 결국 모시기 됐다”며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행사로 도약시키자는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비엔날레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처리되면 공식적으로 차기 대

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시와 재단은 코로나19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내분까지 겹쳐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의 혼란 상황에서 신임 대표 선임이 여러 어려움을 조기 수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1979년 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내딛던 뒤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뉴욕대사관 한국문화원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등 정책홍보관리실장, 문화관광부 차관, 중앙대 부총장,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등을 거쳤다.

이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1994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2년 주기로 행사를 열기로 결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회, 1997년 2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법안화 문제 등으로 인해 1999년 예정된 3회 대회가 1년 연기돼 2000년에 치러졌으며 이후부터 격년으로 2018년 12회 행사까지 열렸다. 지난해 예정된 13회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돼 지난 5월 마무리됐다. 또 직장 내 갑질 등의 내부 문제가 불거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점검을 받았다. /뉴스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에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정됐다.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이달 31일까지 옥천골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 2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작품 전시회

31일까지 옥천골미술관·생활문화센터서 회원 80명 참여 160여점 전시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이훈도, 이하 생문동)가 이달 31일까지 옥천골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 2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이번 작품전시회는 생문동 회원 80명이 참여해 160여점이 전시됐다. 작품은 서예부터 서문자, 사진, 자수 등 다양한 분야가 전시된다. 순창 생문동은 58개 단체, 1100여명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지역의 대표 동호인 연합단체다.

생문동 회원들은 갈고 닦은 각자의 재능을 뽐내며 군청 로비 등에 매년 작품전시회를 가져왔다. 이번에 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에 정식

으로 전시되어 회원들도 예년과 다르게 더욱 뿌듯해하고 있다.

작품 전시에 나선 김모씨는 “그동안 동호회에 가입해 하루 하루 열심히 하다보니 이렇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훈도 회장은 “지역 동호회 회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황태규·박수진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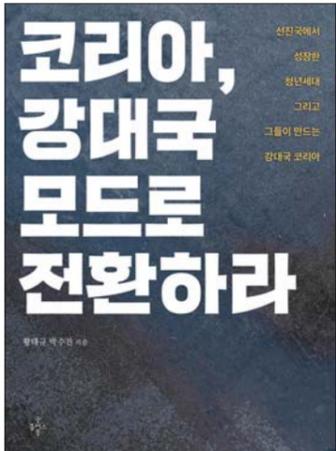
우석대학교 황태규 호텔항공관광학과장과 박수진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객원교수가 한국의 미래 전략을 담은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를 펴냈다.

‘강대국 DNA’를 갖추기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엮은 이 책은 총 3부로 이뤄졌다.

1부는 ‘신 강대국의 등장’이다. 한반도의 정체성과 역할의 새로운 정의를 고려의 역사에서 찾았다. 고려 시대는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이질적 문화와 문명을 포용한 ‘아시아 문명의 순환축’이라고 본다.

2부 ‘신 강대국 시민의 탄생’에서는 신 강대국으로 가는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로 청년세대를 지목한다. 기성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세대, 현재의 청년세대는 선진국형 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들이 많다 는 것이다.

3부 ‘신 강대국, 코리아의 전략’에서는 청년들을 주체로 새로운 강대국 코리아를 건



설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제도를 제시했다.

황태규·박수진 교수는 “현실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의식 수준은 개발도상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약소국 입장에서 국가를 설계하고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이 300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이뤄냈다”면서 “이제 강자의 시각으로 국가체제를 전환하고, 강국의 입장에서 산업전략과 외교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협회장인 황태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 비서관을 지냈다.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수진 객원교수는 전주미식가협회장과 지역미래관광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뉴스

## 고창문화관광재단, ‘예술발전소:온에어’ 참여 예술인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한 ‘예술발전소:온에어’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도내 5개 문화재단 협력 사업인 ‘광역·기초재단간 문화예술교육 개발 협력사업’으로 올해로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될 ‘예술발전소:온에어’는 고창 내 거주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 예술인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문가 자문 워크숍 추진 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감사비와 재료비를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대비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여 사업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19일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발전소:온에어가 문화예술교육으로 주민 삶의 치유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